

뽕나무 이야기

‘뽕나무’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누에, 번데기, 비단, 잠실 등이 있습니다. 50대 이상에겐 익숙하지만, MZ세대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. 중국이 고향인 뽕나무는 약 삼천 년 전 우리나라에 양잠(누에치기)이 전해지면서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합니다.

[남산의 뽕나무] 남산에는 뽕나무와 산뽕나무가 함께 삽니다. 산에서 쉽게 만나는 산뽕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남산 숲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뽕나무는 누에를 키우기 위해 심었는데 점차 야생화되면서 민가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. 남산 산책로 등 길가를 따라 걷다 보면 간간이 뽕나무가 보일 겁니다.

뽕나무



산뽕나무



[뽕나무와 산뽕나무 차이] 뽕나무와 산뽕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매(오디)입니다. 산뽕나무는 꽃이 질 때까지 열매에 암술대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, 뽕나무는 암술대가 거의 없습니다. 오디가 비교적 크면 뽕나무일 가능성이 크고, 작으면 산뽕나무일 확률이 높습니다. 외은 미묘한 차이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.

* 암술대: 암술머리와 씨방을 연결하는 부분

[추억 만들기]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까맣게 익어가는 5월 말. 새까매진 손으로 오디를 입에 넣고 함박웃음 짓던 유년의 기억, 남산의 뽕나무를 보며 달콤한 추억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? 좋은 친구들과 함께!

글 / 사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